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41**  
OCT 28 2022

발간년월 2022년 10월 28일(통권 제241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고립된 러시아, 북극해에서 탈출구를 찾는다.
- 러, 서방 제재 속에서 석탄 수출 물류를 개편
- 러 하바롭스크, 목재 펄릿 생산 현대화 추진
- 러 북극해에서 육·해·공 3대 핵전력 점검 훈련

## 전문가 칼럼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향후 한러 협력 방향

## 공지사항

-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금 제1차 신규 장학생 선발 공고

## 주요 통계

- 2022년 8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 EAEU 코드 기준 39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 EAEU 코드 기준 42~44



## 주요 동향



### 고립된 러시아, 북극해에서 탈출구를 찾는다.

#### ■ 러 부총리, 서방국가의 러시아 경제제재 속 북극항로를 체계적으로 개발 강조<sup>a)</sup>

- 알렉산드르 노박(Aleksandr Novak) 러시아 부총리는 전 세계의 러시아 제재로 수출 통로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을 더욱 모색할 것을 지시함
- 부총리는 최근에 개최된 정부 회의에서 “서방 국가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새롭고 전례없는 압박으로 해상운송 동맥으로서 북극해 항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밝힘
-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는 동쪽으로 향하는 바이칼-아무르(BAM)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 노선에서 물동량 운송 제한을 겪고 있어 북극항로가 더욱 강조되었다고 강조하였음

#### ■ 러시아는 주 무역 상대를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방향 선회 작업을 추진<sup>a)</sup>

-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국제제재로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가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주 무역상대를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음
- 로스아톰에 따르면, 올해 NSR 물동량은 2021년보다 약 80만 톤 증가한 3,3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긍정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 운송 물량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로스아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물동량에 대한 예측은 계속 ‘수정 중’이라고 밝힘
- 기존 푸틴 대통령이 강조한 NSR 물동량 목표는 2024년까지 연간 8000만 톤이었음. 2030년에는 출하량이 2억 톤에 이를 것이라고 올해 8월 발표한 바 있음

#### ■ 문제는 북극항로를 항해하려면 높은 수준의 빙급 선박이 필요하지만 러시아 조선소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임<sup>a)</sup>

- 러시아에 부과된 국제 제재를 감안할 때 외국 선박이 NSR에서 해상운송에 관여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북극항로에 대한 로스아톰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NSR에 대한 항해 허가를 받은 모든 선박이 러시아 국적선이거나 러시아 회사 소유

선박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러시아는 새로운 원자력 쇄빙선 함대를 건조하는 과정에 있으며, 초강력 라이더를 포함한 이 선박들은 연중 상시 운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새로운 LK\_50 쇄빙선 Arktika와 Sibir는 이미 북극해에서 항해 중이나 조만간 건조될 쇄빙선은 몇 년 후에 이용되거나 특정 산업 프로젝트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북극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야심찬 계획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임. 글로벌 컨설팅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하는 북극항로 예상 물동량을 볼 때 이 방대한 상품들이 어디에서 올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함

그림. 러시아 핵 추진 쇄빙선 ‘아르크티카(ARKTIKA)’



자료: 로사토클로트

이슬기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 참고자료

a) <https://thebarentsobserver.com/en/industry-and-energy/2022/10/isolated-russia-seeks-way-out-through-arctic-waters>(2022.10.27. 검색)

## 러시아, 서방 제재 속에서 석탄 수출 물류를 개편

### ■ 러시아산(産) 석탄 경쟁력, 물류 문제 해결이 관건<sup>a)</sup>

- 아나톨리 야노프스키(Anatoly Yanovsky)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실장 보좌관은 육상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항구 인프라도 포함하는 ‘물류’ 차원에서, 러시아 석탄 생산 및 운송 기업들이 최근 10년 동안 물류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 1조 루블을 투자하였다고 밝힘
- 러시아는 세계 석탄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잇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으로 손꼽히고 있어 석탄 수출 시 물류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러시아산(産)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으로 수출되는 석탄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수출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막심 바소프 (Maxim Basov) 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SUEK) 대표는 향후 5~7년 사이에 세계 석탄 시장이 확장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러시아 석탄 수출 가격은 지역에 따라 석탄의 가격의 50~75%가 물류비로 들어감에 따라, 러시아 석탄 생산 및 수출 업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물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 석탄 수출 시장 성장에 제동

- 바소프 대표는 현재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콜롬비아, 남아프리카와 같이 석탄 생산을 증대할 수 있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러시아의 생산성 증대 가능성이 뒤처져있다고 언급했으나, 러시아 물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전략이 있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세르게이 모찰니코프(Sergey Mochalnikov) 러시아 연방 에너지부 차관은 주요 물류 인프라를 확대하는 프로젝트인 바이칼-아무르 간선철도 사업(BAM-1, BAM-2)의 공사 기간을 지키는 것이 석탄 수출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 또 그는 러시아 석탄 가격 체제는 이미 타국 생산 석탄 가격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 석탄 화물 운임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진출을 원하는 시장 및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는 등 악조건 상태에 있다고 덧붙임

## ■ 석탄 수출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 및 신규 사업 필요

- 바소프 대표는 러시아 석탄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극동 지역에서의 석탄 선적량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러시아 철도공사(RZD)와 함께 협력해왔다고 언급함
- 그에 따르면, 석탄기업이 러시아 철도공사와 공동 협력해야 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철송 측면에서 새로운 기관차, 혁신적인 화차 등을 생산하기 위한 철도 기술의 현대화임. 두 번째는 러시아 동부지역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이자 러시아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인 ‘보스토치니 폴리곤(Vostochni Polygon)\*’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사업임
- \* 보스토치니 폴리곤 프로젝트는 단계적으로 철도 화물 운송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극동지역 항만 및 국경 이동 측면에서 바이칼-아무르 간선 철도(BAM)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운송 능력을 1억 4,400만 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며, 프로젝트 2단계에서는 철도 운송 처리 능력을 2024년까지 최대 1억 8000만 톤 증가시키고자 함
- 특히, 확장된 보스토치니 폴리곤 프로젝트의 1단계 시설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앞으로 2~3년 사이에 러시아 업체들의 러시아 화물 운송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러시아 연방 의회의 드미트리 이슬라모프(Dmitry Islamov)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가능한 빨리 BAM-1 프로젝트를 완공시켜야 하고, BAM-2 프로젝트 시설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BAM-3에 관한 설계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함

**예고로프 아르쭰 러시아 전문위원,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  
(egorov201548131@mail.ru)

**유지원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 참고자료

- a) [https://www.vedomosti.ru/press\\_releases/2022/10/12/pereformatirovanie-logistiki-ugolnogo-eksporta-v-usloviyah-sanktsionnogo-davleniya](https://www.vedomosti.ru/press_releases/2022/10/12/pereformatirovanie-logistiki-ugolnogo-eksporta-v-usloviyah-sanktsionnogo-davleniya)(2022.10.24. 검색)

## 러 하바롭스크, 목재 펠릿 생산 현대화 추진

### ■ 극동북극개발공사 ‘루스트란스 DV’사(社), 목재 한국수출 확대 추진<sup>a)</sup>

- 최근 루스트란스(Rustrans) DV社는 러시아 극동북극개발공사와 하바롭스크주 목재 펠릿 생산을 현대화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음. 이 프로젝트에 앞으로 5억 루블을 투입하여 현지인을 위한 일자리 50개를 창출하고,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포함되는 목재 펠릿을 석탄의 대안으로 개발하여 화석연료와 섞어 쓰는 한국에 매달 200톤 이상을 수출할 계획임
- 루스트란스 DV社의 이반 홀로딜린 (Ivan Kholodilin) 대외경제활동 책임이사는 이번 협정 체결로 연간 총 목재 연료 펠릿 생산량이 1만 5,000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또한, 그는 루스트란스 DV社가 앞으로 기업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바, 현재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사는 러시아 극동지역 목재 펠릿 시장 및 목재 펠릿 수출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강조함
- 올해 극동연방관구의 목재 펠릿 수출량은 전년 대비 26% 가량 증가한 16만 3000톤을 달성했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189달러였음
- 한국은 올해 1~7월 동안 목재 연료 펠릿을 11만 8000톤,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 5만 3000톤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짐

예고로프 아르쎴 러시아전문위원,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  
(egorov201548131@mail.ru)

유지원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참고자료

- a) <https://www.eastrussia.ru/news/proizvodstvo-pellet-moderniziruyut-v-khabarovskom-krae/>  
(2022.10.24. 검색)



## 러 북극해에서 육·해·공 3대 핵전력 점검 훈련

### ■ 러시아군이 가상 핵 공격에 대응한 전략으로, 북극해에서 대규모 핵 타격 훈련<sup>a)</sup>

- 러시아의 이번 핵 훈련은 올해로 두 번째로 알려졌는데, 첫 훈련은 우크라이나 침공 닷새 전인 지난 2월 19일에 진행했음. 푸틴 대통령은 크렘린궁에서 모든 훈련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정부는 모든 임무가 완전히 완료되었으며, 발사된 모든 미사일은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강조하였음
-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핵 폭격기 탑재 미사일 등 러시아의 육·해·공 3대 핵전력이 모두 참여했음

### ■ 핵 훈련은 우크라이나에서 핵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진행<sup>a)</sup>

- 러시아군은 북극 기지에서 러시아 극동을 향해 탄소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음. 또한 바렌츠해 있던 러시아 핵잠수함은 러시아 극동지역 캄차카 반도의 쿠라 사격장을 향해 시네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정부는 성명을 통해 “훈련 기간 동안 군 지휘 및 통제 구조의 준비 수준과 부대 내 지도부 및 작전 참모진의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힘
- 또한 이번 훈련과 관련해 “적군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 핵 무기로 대규모 핵 타격을 가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며, 점차 보복공격에서 핵 무기 사용을 승인하고, 대규모로 공격하는 전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슬기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sglee84@kmi.re.kr](mailto:sglee84@kmi.re.kr)/051-797-4768)

– 7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향후 한러 협력 방향

김정기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 속에서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하면서 일어났다.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토의 동진확대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추진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는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략한 위법한 전쟁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양측 간 논쟁이 일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8개월을 넘기며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부분 동원령까지 발령할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저항, 미국, 유럽 등 서방의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지원, 러시아의 자만과 전략·전술적 차원의 군사작전 오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지 않은 형세로 흘러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겨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국가들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시기가 될 것이고,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맞대응 제재를 가하며 버티고 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전략적 목표와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와 회복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었고, 국제사회로부터 침략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으며,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계 대상으로 등장했다. 러시아는 병력 동원 등 전쟁 수행 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전력, 통신, 수도 등의 인프라와 건물·시설 등의 파괴로 국토가 피폐화되고 있으며, 700만여 명에 달하는 난민이 주변 유럽국가를 떠돌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국토를

유린당한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영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쉽게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나토·EU 가입 추진 등 친서방 노선을 견지하면서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가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인도적 전쟁 범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부정적 여파가 지금 유라시아 지역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 등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즉 글로벌 문제로 발현되고 있으며, 국제안보 구조 변화와 연계되면서 국제질서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자리한 서부 유라시아 지대처럼 한반도도 강대국의 세력 각축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깊어지면서 안보 위협과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긴장된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 2.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적인 의미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 모두에게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데 필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안보 위협 완충과 유라시아 세력 패권 복원의 핵심 국가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은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를 유럽 경제권에 통합하고 NATO에 가입시켜 유럽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한 러시아 대 미·유럽 간 대리전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를 미중 전략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세계전략 구현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미·중·러 삼각 전략경쟁 관계’의 확대된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끼임 국가로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선에 러시아를 묶어 두고 러시아의 국력 약화를 유도하는 한편,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러시아의 대중 지원을 했던 미국의 전략이 적어도 주효하고 있다. 다섯째, 유럽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의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전쟁 진행 과정에서 서방의 지원 의지와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큰 우려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적인 의미에서 먼저, 복합대전환의 초불확실성 시기에 러시아가 힘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탈냉전에 기반한 국제안보 질서(특히 유럽 질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냉전 구도 발현 가능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유라시아 역내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안보 불안과 군비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적으로 ‘자유민주 체제 국가 대 권위주의 체제 국가’의 대립 구도로 이어지며 공유하는 가치와 체제를 중심으로 진용 구축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세 번째는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의한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등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번째는 에너지 등 전략자원의 무기화 현상이 일반화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근간 약화와 핵무기 사용 위협이 증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강대국 러시아의 위상 추락과 고립화, 미국과 유럽의 결속 강화와 미국의 위상과 역할 부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 심화와 러시아의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렛대 상실 등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적인 의미로 들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의 본질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약소국을 매개로 강대국의 세력 확대 충돌과 연관되어 있어,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국가들의 숙명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했을 때, 한반도 또한 현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행위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물음들로 가득 차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국가 주권과 영토의 보존, 이를 위한 안보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 사례가 될 수도 있으며, ‘한미 동맹’과 국운을 개척해 가는 ‘국민적 의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대 중러의 대결적 구도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에 북중러 삼각협력 체제 같은 진영 간 대립과 세력 형성 현상이 도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러 연대 강화와 북러 관계 밀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러관계 경색과 함께 중러와의 북한 비핵화 협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하면서 동북아에서의 선택지는 북한,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며,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 형성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 3. 우크라이나 전쟁 속 한러관계의 현 주소

한러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로 인해 냉각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 러시아의 한국 비우호적 국가 포함 등으로 한러관계가 수교 이래 심각한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한국과 러시아는 과거 한러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최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이러한 냉각 상태의 한러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한러관계를 둘러싸고 미래 관계 악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일부 구조적인 현상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위기 현상들이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일반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내 이런 현상은 20세기에 한국이 겪은 전쟁의 경험과 안보 트라우마가 되살아난다는 방증이며, 지금은 한국의 인권과 민주 의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져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도 이 같은 한국 내 분위기와 한국인들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래 한러관계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라는 관점에서 한국을 파악하고 인식하려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한국 내 러시아 전문가들은 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러 양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한러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국 모두 현재 어려운 순간이지만 수교 30주년의 다양한 행사와 만남을 통해 지향하고자 했던 미래 30년을 위해서는 눈앞에 닥친 난제를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러 양국 모두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간 쌓아온 한러관계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알다시피 한국과 러시아는 경제, 안보 등 국익 차원에서 상호 중요한 국가이다. 러시아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자국이 한국을 비 우호 국가로 지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미국 등 서방의 선전과 주장에 그대로 편승해서 반(反)러시아 입장에 서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한러관계가 어렵더라도 그 자체 그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하되, 내일을 기약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또 다른 30년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 전쟁 이후 한러관계가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양국 관계의 지속을 위해 새로운 챕터(chapter)를 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전문가 그룹 등을 중심으로 한러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그 시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색된 한러관계를 풀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4. 미래 한러 협력 방향과 고려사항

한러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평화적으로 타결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회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재가 완화된 러시아와 한국이 교류 협력 관계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만큼 우선 한러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가능한 영역과 수준에서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협력 상대인 만큼 최소한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채널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계기 양국 외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 간 대화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 등의 교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삼성, LG, 현대차 등 러시아 시장 진출 대기업들이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에 이르고, 주재원 가족도 불가피하게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측이 국영화 등 몰수 조치에 나서지 못하도록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업인 교류, 학술교류, 교환학생 교류, 문화교류 등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양국 간 대화 채널을 살려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간 전략대화 소통 시 그간 협력해 왔던 아이템 및 아젠다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좋다.

또한, 러시아와의 미래 협력은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러 양국 지도부가 상대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북핵 해결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의 하나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한국 지도층 특히 현 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러시아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의 주요 행위자이고 글로벌 가치사슬 협력의 주요 대상 국가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 지도부도 한국이 작은 국가에 지나지 않고 미국과의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중요성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외교 안보 차원이다. 전쟁 이후 상호 공공외교 재개를 통한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매개로 고위급 전략대화를 재개하는 등 접촉을 이어가야 한다. 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이어지고, 한국과 러시아가 함께 수행해온 북한 비핵화 협력 노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대북 접근과 밀착 현상이 북한을 보다 도발적으로 만들고 있다. 러시아 측에 이같은 점을 각인시키고 군사협력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접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을 압박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미래 협력 방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한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식량,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신소재 등 주요 전략자원의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 변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극 문제는 러시아의 미래 대외전략 핵심 소재이고 미래 우리 국익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진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쟁 이전과는 다른 많은 부문에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4차 디지털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첨단기술과 ICT 분야의 협력, 중소기업 협력 강화, 기후변화, 국제보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을 창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공지 사항



## 모집개요

**사업내용** ▶ 미래 극지연구를 주도하고 전문적인 극지 연구(과학기술·인문·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대상 수요자 맞춤형 장학금 수여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외 극지 분야 및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지원규모** ▶ 등록금, 입학금, 연구활동비로 활용 가능한 1학기 기준 1인 최대 10백만원 내 지원  
※ 자세한 지원규모, 지원자격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 내용을 참고바람

**모집인원** ▶ 2인 내외 선발

**접수기간** ▶ 2022년 10월 17일(월)~11월 11일(금) 18: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weekly\_kmi@kmi.re.kr)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장학생 지원서 (붙임 양식1)  
② 자기소개서 (붙임 양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붙임 양식3)  
④ 극지연구계획서 (붙임 양식4)  
⑤ 졸업 후 계획서 (붙임 양식5)  
⑥ 사회기여계획서 (붙임 양식6)  
⑦ 영어 성적 증명서 (TOEIC, TEPS, TOEFL 등)  
⑧ (해당사항 있을 시) 극지연구·극지관련 활동 증빙 서류  
⑨ (해당사항 있을 시) 장학생 추천서  
제출 서류 내용에 언급된 극지관련 활동은 서류 증빙이 필수이며,  
... 서류로 증명되지 않은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장학생 추천서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음  
영어 성적의 경우 TOEIC 800점, TEPS 650점,  
NEW TEPS 310점, TOEFL 90점(학1) 등 이상 지원 가능

### \* 재학생

⑩ 재학증명서  
⑪ 학업성적증명서 (대학원 입학 이래 전체학기 성적)

### \* 신입학생

⑩ 입학예정증명서 혹은 대학원 합격확인서  
⑪ 학부성적증명서 (학부 4년 전체 성적)

제출서류 ①번에서 ⑪번까지 순서대로 스캔하여 한 개의 전자파일(PDF)로  
... 첨부하여 전자메일로(weekly\_kmi@kmi.re.kr) 제출(문의: 051-797-4765)  
③⑨ 해당 시 제출(우대 사항)

## 장학생 의무

-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학기별 1회 극지 분야 관련 수업 수강, 보고서 작성, 논문 게재 실적, 대외활동 등과 같은 극지 연구 및 활동 실적 제출 필수  
- 극지 관련\* 졸업논문 작성 및 제출 필수

\* 극지 관련 대기·지질·빙하·해양환경·생명과학·탐사기술 등 과학연구, 조선·해운·에너지·수산업 등 극지 산업, 국제협력 및 관련 정책 등을 주제로 한 학위 논문

## 장학생 특전

▶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 장학생 임명장 수여  
▶ 우수 장학생 차년도 '북극서클 총회' 참석 기회 제공  
▶ 극지 관련 논문 작성 시 논문 게재료 및 심사비 지원(사후지원)  
▶ 장학생 진로 조사 및 취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졸업생들의 희망 진로에 따른 사후 극지 분야로의 취업연계 지원 등

## 일정안내



## 문의처

KMI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유지원 연구원

☎ 051) 797-4765

✉ weekly\_kmi@kmi.re.kr

주최/주관 :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주요 통계



표. 2022년 8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극동지역	13.5	1.4%	6.3	-0.8%	19.8	0.7%
북극해	2.9	-4.4%	5.8	8%	8.7	4.3%
발트해	7.5	-18.2%	12.4	13.8%	19.9	-1.3%
아조프-흑해	10.8	0.3%	11.5	-0.2%	22.3	0%
카스피해	0.4	5.3%	0.5	-41.2%	0.6	-25.3%
합계	35.1	-4.9%	36.2	4.9%	71.3	0.1%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1~8월 기준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32107/> (2022.10.6.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33749/> (2022.10.6.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39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	10	01-중앙연방관구	14000 - 벨고로드주	2.28	0.1
				17000 - 블라디미르주	628.66	216
				20000 - 보로네시주	3.57	0.17
				24000 - 이바노보주	1.24	0.03
				28000 - 트베리주	2.92	0.05
				29000 - 칼루가주	1680.07	572.59
				34000 - 코스트로마주	39.8	17.96
				38000 - 쿠르스크주	95.93	12
				42000 - 리페츠크주	283.35	48
				45000 - 모스크바시	18719.91	6609.58
				46000 - 모스크바주	12876.54	5400.64
				61000 - 라잔주	87.49	40.01
				66000 - 스몰렌스크주	2180.96	974.78
				70000 - 톨라주	0.41	0.1
				78000 - 야로슬라블주	61.3	16.46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5.4	0.02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1056.24	165.01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7120.37	2255.87
				41000 - 레닌그라드주	2255.66	418.36
				49000 - 노브고로드주	478.57	29.13
				58000 - 프스코프주	149.08	25.21
				86000 - 카렐리아공화국	0.64	0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5.81	0.07
				18000 - 볼고그라드주	435.69	141.28
			04-볼가연방관구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3119.05	1069.74
				33000 - 키로프주	57.66	18
				36000 - 사마라주	477.91	122.44
				56000 - 펜자주	200.49	41.61
				57000 - 페름변강주	114.84	38.83

					63000 - 사라토프주	1000.9	451
					73000 - 울라놉스크주	215.05	50.69
					80000 - 바시키르공화국	0.08	0
					88000 - 마리엘공화국	107.49	20.81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3135.72	1792.89
					94000 - 우드무르크공화국	267.63	71.81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641.63	191.72
					71000 - 튜멘주	19.75	0
					71100 - 한티-만시자치구(튜멘주)	2.18	0.04
					75000 - 첼랴빈스크주	244.43	14.51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237.41	95.18
					25000 - 이르쿠츠크주	329.01	93.56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153.06	469.51	
			52000 - 옴스크주		5.86	0.76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5085.19	3370.44	
				08000 - 하바롭스크 변강주	830.68	504.26	
				10000 - 아무르주	0.96	0.02	
				30000 - 캄차트카 변강주	462.11	176.61	
				44000 - 마가단주	2.27	0.89	
				64000 - 사할린주	129.93	48.08	
			08-북카프카스연방관구	07000 - 스타브로폴 변강주	61.04	19.15	
			11	01-중앙연방관구	14000 - 벨고로드주	2.38	0.09
					17000 - 블라디미르주	21.36	7.5
					20000 - 보로네시주	395.1	28.6
					29000 - 칼루가주	1090.06	322.19
					34000 - 코스트로마주	644.2	506
					45000 - 모스크바시	24663.32	8351.73
					46000 - 모스크바주	13518.34	4650.58
					66000 - 스몰렌스크주	2839.54	1606.71
					78000 - 야로슬라블주	1.45	0.01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996.11	114.58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1373.17	3982.22
					41000 - 레닌그라드주	2697	547.59
			47000 - 무르만스크주		40.99	1.07	

				49000 - 노브고로드주	127.11	10.85
				56000 - 펜자주	1341.82	307.1
				58000 - 프스코프주	240.87	46.76
				86000 - 카렐리야 공화국	0.1	0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40.98	0.44
				18000 - 볼고그라드주	717.94	210.8
				60000 - 로스토프주	493.74	10.91
			04-볼가연방관구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3638.07	1119.76
				33000 - 키로프주	230.87	98
				36000 - 사마라주	361.41	151.77
				57000 - 페름 변경주	40.02	2.01
				63000 - 사라토프주	1.51	0.02
				73000 - 울라놉스크주	752.84	466.47
				80000 - 바시키르 공화국	20.98	0.53
				88000 - 마리엘 공화국	502.15	108.51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1567.1	786.15
				94000 - 우드무르트 공화국	77.41	7.16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638.14	270.41
				71000 - 튜멘주	1.89	0.01
				71100 - 한티-만시 자치구 (튜멘주)	0.61	0.01
				71140 - 야말로-네네츠 자치구(튜멘주)	0.41	0.28
				75000 - 첼랴빈스크주	395.03	9.2
			06-시베리아연방관구	01000 - 알타이 변경주	1.66	0.13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1546.68	802.63
				25000 - 이르쿠츠크주	297.39	102.28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286.53	508.98
				52000 - 옴스크주	119.93	43.75
				69000 - 톰스크주	432.01	230.3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4570.3	2938.38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63.01	74.33
				10000 - 아무르주	52.9	37.98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181.86	81.28
				44000 - 마가단주	1.46	0.82
				64000 - 사할린주	156.75	52.96

		12		77000 - 추코트카 자치구	0.02	0
			01-중앙연방관구	14000 - 벨고로드주	0.97	0.02
				15000 - 브란스크주	984.27	469
				17000 - 블라디미르주	98.11	36.15
				24000 - 이바노보주	7.47	0.1
				28000 - 트베리주	5.12	0.04
				29000 - 칼루가주	1358.75	426.44
				42000 - 리페츠크주	72.54	20.84
				45000 - 모스크바시	23398.52	7277.76
				46000 - 모스크바주	11785.06	4702.16
				54000 - 오를주	210.41	18.48
				61000 - 라잔주	51.2	20.35
				66000 - 스몰렌스크주	1466.98	829.66
				68000 - 탐보프주	298.18	61.91
				78000 - 야로슬라블주	89.12	19.7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0.14	0.02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809.47	88.97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9849.26	3329.67
				41000 - 레닌그라드주	2565.96	413.61
				49000 - 노브고로드주	303.12	19.85
				58000 - 프스코프주	2.27	0.41
				86000 - 카렐리야 공화국	0.55	0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14.32	2.37
				18000 - 볼고그라드주	135.22	36.64
				35000 - 크림공화국	0.25	0.01
				60000 - 로스토프주	319.43	26.89
			04-볼가연방관구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4937.34	1637
				33000 - 키로프주	150.56	53
				36000 - 사마라주	117.15	25.5
				56000 - 펜자주	304.4	61.27
				57000 - 페름 변경주	0.06	0
				63000 - 사라토프주	1133.51	464.02
				73000 - 울랴놉스크주	172.56	30.78
				80000 - 바시키르 공화국	590.83	289.02



				89000 - 모르도비아 공화국	25.8	12
				92000 - 타타르스탄 공화국	3487.33	1935.73
				94000 - 우드무르트 공화국	104.43	25.64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990.77	356.68
				71000 - 튜멘주	29.72	2.16
				71100 - 한티-만시 자치구	0.07	0
				75000 - 첼랴빈스크주	184.37	10.76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974.74	498.68
				25000 - 이르쿠츠크주	18.41	0.04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443.71	637.05
				52000 - 옴스크주	70.85	24.87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6137.53	4112.74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066.32	577.84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195.98	87.03
				44000 - 마가단주	3.78	1.32
				64000 - 사할린주	44.7	11.86
			08-북카프카스연방관구	07000 - 스타브로폴 변경주	236.77	57.21

\* 주: EAEU 코드 39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8.2.검색\)](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8.2.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42	가죽 제품; 하네스·안장 제품; 여행 물품, 가방 및 관련 물품, 동물의 내부 장기에서 추출한 제품 (누에나방 분비물 제외)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0.43	0.01
			04-볼가연방관구	36000 - 사마라주	0.04	0
				57000 - 페름변강주	0.26	0.01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45	0.02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2.32	0.05
43	천연 및 인조 모피; 모피 제품들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6.69	0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62	5.04
			08-북카프카스연방관구	82000 - 다게스탄	1.57	0.91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8.61	0
44	목재 및 목재 제품; 숯	10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290.34	356.4
			02-북서연방관구	19000 - 볼고그라드주	689.1	1270.19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212	2396
				41000 - 레닌그라드주	487.75	890.74
				49000 - 노브고라드주	585.84	712.53
				86000 - 카렐리야공화국	100.26	97.88
				87000 - 코미공화국	493.64	232.32
			04-볼가연방관구	33000 - 키로프주	484.18	245.51
				57000 - 페름변강주	0	0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27.02	21.69
				71000 - 튜멘주	185.9	112.71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319.31	408.57
				25000 - 이르쿠츠크주	2145.14	5464.12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71.17	245.7
				52000 - 옴스크주	57.3	45.54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233.87	4177.83
				08000 - 하바롭스크 변강주	4259.66	21444.46
				64000 - 사할린주	153.32	302.27
		11	01-중앙연방관구	34000 - 코스트로마주	31.78	22.56
				45000 - 모스크바시	0	0

				46000 - 모스크바주	613.01	847.63
			02-북서연방관구	11000 - 아르한겔스크주	36.97	75.48
				19000 - 볼고그다주	575.2	1039.66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039.88	2024.89
				41000 - 레닌그라드주	385.49	762.84
				49000 - 노브고라드주	1160.34	1261.06
				58000 - 프스코프주	156.39	252.64
				86000 - 카렐리야공화국	93.23	155.29
				87000 - 코미공화국	420.98	231.08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13.7	22.48
			04-볼가연방관구	33000 - 키로프주	832.51	534.71
				57000 - 페름변강주	48.3	45.92
				92000 - 타타르스탄	32.5	47.82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152.3	159.67
				71000 - 튜멘주	357.36	266.99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340.55	495.02
				25000 - 이르쿠츠크주	2189.37	4849.75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64.75	121.75
				52000 - 옴스크주	82	68.24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213.02	3863.27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2850.36	9843.22
		12	01-중앙연방관구	28000 - 트베리주	98.43	162.82
				45000 - 모스크바시	74.48	117.1
				46000 - 모스크바주	323.09	370.81
			02-북서연방관구	19000 - 볼고그다주	389.32	655.81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269.33	3009.35
				41000 - 레닌그라드주	477.73	944.49
				49000 - 노브고라드주	1014.68	1366.08
				86000 - 카렐리야공화국	233.84	450.06
				87000 - 코미공화국	676.83	348.66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23.38	123
			04-볼가연방관구	33000 - 키로프주	975.88	638.2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220.34	298.79
				71000 - 튜멘주	49.54	45.06
			06-시베리아연방관구	04000 -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357.12	738.54
				25000 - 이르쿠츠크주	2428.57	5650.52
				32000 - 케메로보주	7.98	22.3
				52000 - 옴스크주	72.81	45.54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376.76	4078.58
				08000 - 하바롭스크 변강주	2387.85	12442.44
				64000 - 사할린주	171.75	505.6

\* 주: EAEU 코드 42~44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8.2.검색\)](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8.2.검색))